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 이처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몸무게 65kg의 성인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50mL.20도), 맥주 1캔(355mL.4도), 와인 1잔(50mL.13도)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2회 적발 시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음주 교통사고 1회 시 2년, 2회 시 3년, 사망 사고를 냈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 징역형을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토요일(17.4%)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월 2회 동시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맞벌이 가구 1년 새 22만 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 2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1인가구 비중은 줄었다.



7~12세 자녀가 있는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상승폭(2.9%포인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대(54.2%)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49.9%) 가구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율(2.6%포인트)이 가장 높았다. 50~64

세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50.5%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

가구주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맞벌이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2017년 59.4%에서 62.7%로 3.3%포인트 늘었다. 맞벌이 가구의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이 56.2%로 농림어업(81.2%) 다음으로 높았다.

취업자인 1인가구는 353만7,000가구로 증가했고 전년보다 10만6,000명(3.1%) 증가했다. 남자는 5만6,000가구(2.8%), 여자는 5만 가구(3.5%) 증가했다.

취업한 1인 가구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은 월소득 200만원 아래였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1인가구 비중은 2017년 40.2%에서 지난해 35.9%로 감소했다.

지난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수는 557만5,000가구로 2017년보다 4%(21만9,000가구) 증가해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맞벌이 가구 증가율은 2014년과 2016년 각각 3%와 3.5%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6% 감소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1,224만5,000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였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682만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20쌍 중 1쌍꼴(5.6%)이었다.

맞벌이 가구에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는 44.8시간, 여자는 40.3시간이었다. 전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가 늘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전체 유배우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였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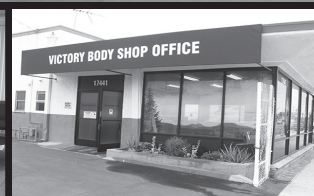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